

11/8/20

설교 제목: 귀향을 결심하고 밧단아람을 탈출하는 야곱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31 장 1-55 절

- 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 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 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 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 6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 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 8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 9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 10 그 양 떼가 새끼 뉘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 11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 12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 13 나는 벤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 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 18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 19 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 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 21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 22 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 23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 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 25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 2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 27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 28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 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 30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 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34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36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37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38 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십 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향으로 돌아갔더라

드디어 야곱이 20 년간의 밧단아람에서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고향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형을 피해 가나안에서 도망쳐 밧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왔던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을 피해 밧단아람에서 도망쳐 가나안으로 갑니다.

혈혈단신에 무일푼이었던 그때와는 달리 네 아내와 열 한 명의 아들들 그리고 한 명의 딸과 함께 많은 가축들을 거느렸습니다.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밧단아람을 도망쳐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 년을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였고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야곱은 혹시라도 라반에게 가족들과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람은 편해지면 다리를 뺀고 더 편해지면 자리 깔고 눕기 마련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밧단아람에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라반과 그의 아들을 사용하여 긴장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도 못미더워 하나님은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야곱은 20년 전 하나님이 벳엘에서 주신 약속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28장).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은 야곱은 마음을 정하고 라헬과 레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비칩니다.

라반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사실과 그동안 라반이 자신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품삿을 열 번이나 변경한 사실과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합니다.

라반은 품삯으로 처음에는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 아롱진 양과 염소, 점 있는 양과 염소, 검은 양들을 주기로 하였으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자 점있는 것만 주겠다고 하고 또 점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자 다시 얼룩무늬가 있는 것만 주겠다고 계속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라반이 점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되리라 하면 점 있는 새끼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되리라 하면 얼룩무늬 있는 새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덧붙여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13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엘은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아람으로 가던 날, 날이 저물어 땅바닥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을 성토했으며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대로 따를 것을 권합니다.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뜻에 적극 동조하고 나섭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한 술 더 뜹니다.

라반이 자신들과의 결혼을 빌미로 무려 14년 동안 야곱을 품삯없이 부린 사실과 그 후에도 약정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계속 변경한 사실을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적극적인 동조에 힘입은 야곱은 서둘러 밧단아람을 떠날 준비를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19 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서 부재 중이었고 그 틈을 타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했습니다.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던 가정 수호신이었으며 재산 상속의 합법적 증표였습니다. 가족 중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것이 가족 수호신이라서라기 보다는 후일 재산 상속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난 지 삼 일 만에 누군가가 라반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라반은 당장 자신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뒤쫓아 칠 일 만에 그를 따라 잡았습니다.

22 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은 일행이 많은 연유로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면합니다.

그밤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가 치밀어 야곱을 뒤쫓았던 라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라반은 감정을 억제하고 야곱에게 어찌하여 자신에게 딸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느냐고 애둘러 섭섭함을 표합니다.

‘칼로 잡은 자’란 전쟁 포로를 의미합니다.

이어 라반은 드라빔 이야기를 꺼냅니다.

30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어찌면 드라빔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자신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워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다고 대답하면서 드라빔을 훔친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것을 찾아 발견하면 가져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온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부터 레아와 두 여종 빌하와 실바의 장막을 다 뒤지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까지 뒤졌지만 끝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입장을 고려해 당장은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들고 나온 라헬은 야곱의 말대로 수를 다하지 못하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던 중 죽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성심껏 라반을 섬겼음에도 자신을 마치 도둑 취급하는 라반에게 울분을 터뜨립니다.

양쪽의 일행들로 하여금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한 일들과 라반이 자신에게 한 일들을 언급합니다.

야곱은 숫양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숫양은 암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들 잡아먹었지만 자신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맹수에게 찢긴 것 도둑맞은 것까지도 라반이 보상을 요구해 물어냈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웠으나 성심성의껏 라반을 위해 일했다고 합니다.

반면 라반은 자신의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했으며 만약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 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빈 손으로 돌려 보냈을 것이라고 합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해 머쓱해지는데다가 야곱이 사람들 앞에서 사실로 들이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야곱에게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더 두지 말 것과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경계로 상호불가침 약속을 지킬 것을 언약하자고 했고 둘은 언약의 증거로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각각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 내려오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언약 체결이 끝난 후에 야곱은 따로 산에서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하여 드러진 감사와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 밧단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을 끝으로 라반의 이름은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의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뜻대로 택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택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택자로서 각각 하나님의 구속사에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각자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해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각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